

원천강의 남펜네가
왕이 되젠 혼난
나라이선
“원천강 남펜넬
잽혀오민 죽여볼키엔”
소령을 보내여가난
원천강 남펜넨
그영훈 소실을
미리 알고,
원천강고라.
“아무날 아무시에
누게가 날 촛양 오고대라
“몰르기엥”만 배기라.”
혼여 두언.
이녁은 장판뒤에 간
장황굽을 파고
그디 지새독을 싱거서
그쏘곱에 들어았안
공비를 혼고.
우티는 장황을 싱거부니.
소령이 원천강 남펜을
심으레 오라도
그딱 촛지를 못 혼고
돌아가곡 돌아가곡
혼였수다
그영 혼난 혼률날은
나라이서 꾀를 내연
예펜넬 내세완.
시술난 얘기를 업전
보내니.

이 예펜이

원천강신딜 가고,

“너의 남펜 어디 갔느냐?”

“나는 간 디 몰른다.”

흐니.

“왜, 남펜 간 곳을

몰르겠느냐?

이놈의 주속 촛아만지민

얘개 돌아정 죽겠다.

이 얘기 시술 나도록

배린 채도 아녀곡.

돈 훈푼도 아니당흐여 주곡.

어서, 이 얘기 맡으라.”

흐니.

원천강은 남펜이

이녁 몰르게 어딜 간

족은 각실 얻언

애길 낳시카부댄.

장황뒤에 간

지새독을 올아 제쳐불멍.

“너, 이 놈아.

너 이초록 각실 얻언

얘기 시술 나도록

날?라 혼말꺼리 아녀곡

너 이 놈아, 나오라.”

경흐난.

흘 수 엇이

원천강 남펜이 나오난

원천강 남펜을

나라레 오꽃 심어 가불었수다.

원천강 남펜은 잽혀 가멍.

원천강?라 흐는 말이.

“너 이년이
좀 좀만 해시민
사흘 후젠
하늘에 올라강
왕이 되영 펜안이 살곡.
훌륭한 사름이 될 건디
입을 잘 못들은 때문에
이젠 나라이서
나를 심어가불민
너는 살 수가 엇일 테이니.
원천강이나 빙 살라.
너의 팔즈다.”
하니.
부인이 글로부떠
“원천강”이엥 흡네다.

<한경면 조수리 여무 54세 조술생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13-614.